

식당가 송년회 예약 급증…꽁꽁 얼었던 연말 ‘봄바람’ 분다

광주 외식업계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단체 예약 줄이어
모처럼 북적 ‘연말 특수’ 체감…소비심리 회복 조짐에 화색

연말을 맞아 광주 지역 외식업계에 단체 송년회 등 연말 모임 예약이 급증하면서 식당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에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업 사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수년째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만큼 식당가에서는 “모처럼 북적이는 연말을 보내게 됐다”며 화색을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 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0명 이상의 단체 송년회 예약이 급증했다. 특히 고깃집, 한정식집, 횟집 등 회식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저녁시간대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은 “지난해 연말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업 사태 이후 경기 악화로 송년회뿐 아니라 신년 모임마저 매출이 급락했던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광주시 동구에서 3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 경덕(여·68)씨는 “주변에 관공서가 많아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당일에도 예약 전화가 오는 등 단체 손님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일반 손님까지 포함하면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올해는 연말 특수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정선희(여·66)씨도 “지난해 송년회 예약은 아예 없다시피 했고, 가족 모임도 거의 없었다”며 “올해 주말은 가족 모임 예약이 내년 초까지 대부분 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평일 예약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 여파로 침체됐던 최근 몇년과 비교해도 예약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연회장·뷔페 등이 마련된 웨딩홀 송년회 대관, 이벤트 업체 예약 등도 벌써 ‘포화’ 상태다.

서구의 한 웨딩홀 관계자는 “이번달 송년회 예약

은 모든 시간대가 마감된 상태”라며 “벌써 내년 신년회 문의도 잇따르는 등 연말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도 지난해와 달리 송년회를 반기며 연말 분위기가 한층 살아났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효정(여·28)씨는 “제임사태와 제주항공 참사로 회사에서도 송년회를 취소하고 넘어갔다. 친구들도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신년을 맞는 기분도 없었다”며 “올해는 일찌감치 날짜를 잡고 식당 예약을 마치는 등 회사와 부서 회식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김수민(35)씨는 “올해는 소소한 모임들이 많이 잡혀있어서 지난해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며 “지난해는 조용히 넘어갔는데 올해는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모임이 회복되면서 기저효과(기준시점이나 비교시점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아 차이가 과장되게 나타나는 현상)로 인해 매출 상승 효과도 두드러져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지역 경제의 잇딴 호재가 시민들의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경호 전남대 경제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여파와 참사 등으로 상가들이 위축된 탓에 올해 유독 예약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데이터센터 유틸리티 등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호재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소비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소비에는 패턴이 작용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경험도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소비 회복 지속 여부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만큼 모았어요

1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동직원들과 코리아유치원 아이들이 1년간 모은 우유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동전나눔행사 이날 모금액 956,400원은 연말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부안 방사능방재센터 내년 완공…한빛1호기 연장 논란 재점화

설계수명 만료 앞둔 한빛1호기와 연결 해석…지역사회 촉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안에 한빛원전과 관련된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내년 완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단체와 한빛원전 인근 영광군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빛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12월 22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방재센터 완공이 한빛 1호기 계속 운영과 연관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안위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까지 전북 부안에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센터는 기존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구축돼있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발전소와

가까이 위치한다는 한계를 반영해 마련된 위기 대응 기관이다. 지진,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기존 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이 된다.

센타가 완공되면 전국 광역센터는 지난 2022년 8월 개소한 울산시 울주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2025년 6월 개소한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센터에 이어 3개가 된다. 기존 전국 5개의 방사능방재센터는 원전으로부터 10~14km지점에, 광역센터는 원전으로부터 30~43km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원안위는 광역센터 준공을 통해 원전 사고 상황 악화나 복수 부지 사고에도 중단 없이 대응 가능 한 광역 방사능 방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센터 완공

계획이 한빛 1호기 계속운전과 연결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롭게 운영하는 센터가 다른 센터의 육상육이 되지는 않으려는지, 단순하게 원안위 조직 강화를 위해 자리 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빛1호기 핵발전소의 최고의 안전대책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타의 실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 집행위원장은 “30km 떨어진 곳에서 지휘를 하겠다는 취지로 센터 부지를 선정했는데, 바람이 불면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휘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후보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북구 공무원노조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은 임명권을 가진 북구와 공단의 공공성·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북구는 이사장 자리를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 두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출근길 숙취운전 잊단 적발

광주·전남 내일 5~10mm 비

광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을 한 결과, 한 시간여만에 13명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18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여 동안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경우는 1명, 정지 수치(0.03%~0.08%)인 경우는 7명 적발됐다. 훈방 수치(0.003% 미만)는 5명이었다.

경찰은 매일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오상아 吾喪我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I Have Lost Myself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함파우길 65-14 T.063 620 5660
화요일~일요일 10:00~18:00까지 운영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2025. 10. 28. TUE

2026. 02. 22. SUN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전관